

# VR로 사격훈련? 영화가 현실로... SKT '스마트 육사'

5G 기반 VR·AR '미래형 훈련' 시뮬레이터·분석 시스템 등 구성  
실제수준 총기로 정밀훈련 가능  
AI·빅데이터가 체력 관리까지



육사 생도가 VR 기반 정밀사격훈련 시뮬레이터로 전시 상황 사격훈련을 받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과 육군사관학교가 군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구축에 나선다. 캠퍼스에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을 도입하고 '스마트 강의실'을 만든다.

SK텔레콤은 육군사관학교와 15일 서울 공동 육군사관학교 본관에서 '5G 기술 기반의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과 육군사관학교는 5G 기술과 첨단 ICT 기술(AI, AR, VR,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을 집약한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양자암호, 드론 관련 기술을 포함한 5G·ICT 기술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내 서울 육사 캠퍼스 전역에 5G 인프라를 구

축한다. 단일 군사 시설의 지형, 보안 등을 고려해 맞춤형 5G 인프라를 전면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육사 캠퍼스는 ▲군사훈련 ▲체력관리 ▲학습환경 ▲시설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5G 기반 첨단 ICT 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로 바뀐다.

지난 해 육사가 독자 개발한 통합 전투훈련체계는 5G 네트워크와 결합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5G의 강점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덕분에 10명

내외의 분대 단위만 가능했던 훈련 규모가 200명 내외의 중대급 단위로 커지게 된다. 초고화질의 VR 영상도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어 한층 몰입감 있는 훈련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VR·AR 기반 통합 전투훈련체계'는 VR 기반 정밀사격훈련 시뮬레이터, VR 기반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AR 기반 지휘통제훈련 시뮬레이터, 훈련정보 수집 및 훈련효과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VR 기반 정밀사격훈련과 전술훈련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의 군(軍)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VR 기반 사격훈련이 도입되면 훈련자는 멀티스크린 속에서 개인 화기를 가지고 영점사격, 실내 축소사격, 실거리 사격, 이동표적 사격, 야간사격, 전장 상황 사격 등 실전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훈련을 할 수 있다. 특히 실제수준의 반동과 총기, 총탄 종류 별로 정확한 탄도 곡선을 적용해 정밀한 훈련이 가능해진다.

AR 기반 지휘통제훈련은 전시 상황 시뮬레이션(위 게임)을 AR를 활용하는 앞에 3차원 지형을 띄워 놓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AR 기반 훈련은 작전 지를 실제로 내려보듯이 지휘를 할 수 있다.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체계가 도입되면 생도들의 체력관리와 교육환경도 바뀐다. 앞으로 생도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생활하면서 AI·빅데이터 기술로 자신의 체력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 강의실'을 도입한다. 생도들에게 태블릿 P

C,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지급해 강의 필기부터 과제까지 종이 없이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현한다. 또 VR·AR 기반 교육 콘텐츠, 앱 기반 실시간 퀴즈 등을 도입해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일과 후에는 AI 조교가 개인별 학습 일정도 관리해주게 된다.

양측은 5G·ICT 관련 기술(양자암호, 드론, AI·AR·VR·IoT 등) 관련 ICT 산학 세미나를 열고 기술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5G·ICT 관련 공동 연구과제 수행, 군사업 과제 발굴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방 분야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최일규 B2B사업단장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혁신'의 핵심은 5G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네트워크"라며 "SK텔레콤의 맞춤형 5G 인프라 구축과 5GX 기술로 육군사관학교가 국방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정진경 학교장은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선도하는 군의 최정예 장교 양성 기관으로서, 퍼스트무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현대위아, 中 공략 위해 '맞춤형' 승부수

'CIMT 2019'서 공작기계 8대 전시

현대위아가 중국 현지에서 제작한 공작 기계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중국 북경 국제전시센터(CIEC)에서 개최한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 'CIMT 2019'에서 KF5608 등 총 8대의 공작기계를 전시한다고 15일 밝혔다.

CIMT는 80개국에서 1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현대위아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아이리스(iRis)'도 중국에 최초로 선보인다.

출품 전시 기종 8대 모두를 중국 수요가 높은 '중국 맞춤형' 모델로 채웠다. 실제 출품 기종 8대 중 E200C, KIT 4500, HD2208, KF5608, KF4608 등 5대는 중국 감소성 장가항시에 위치한 현대위아 강소법인에서 직접 생산하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전시센터(CIEC)에서 열리는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 'CIMT 2019'에 참가한 현대위아의 부스 조감도 /현대위아

모델이다.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모델을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최적화해 점유율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동시에 현지 직접 A/S 등으로 서비스 품질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대위아는 현지 생산 전략 모델과 iRis 솔루션으로 중국 내 공작기계 판매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 포스코, LNG터미널 자회사에 양도

(포스코에너지)

최정우 회장 '100대 개혁과제'  
기존사업과 연계해 경쟁력 강화

포스코가 그룹사업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룹 LNG미드스트림 사업을 재편한다.

포스코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광양에서 운영 중인 LNG터미널을 포스코에너지에 양도하고, 포스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내에 위치한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NG미드스트림 사업재편은 지난해 11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포스코그룹의 LNG미드스트림 사업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포스코는 LNG미드스트림 사업 재편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과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LNG미드스트림 사업 재편을 통해 그룹사업간 업무효율을 높이고 더욱 탄탄한 사업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LNG도입 및 트레이딩 업무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전담하고, LNG터미널 사업은 포스코에너지로 이관해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과 연계해 그룹의 LNG미드스트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인수해 기존 자가발전설비와 통합운영함으로써 효

율을 극대화하고 제철소 전력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생가스복합발전소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철소의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인수하는 LNG터미널은 2005년에 포스코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광양제철소에 건설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1~4호기와 건설 중인 5호기를 포함해 LNG탱크 총 5기가 있다. 저장능력은 약 73만㎥에 달한다.

천연가스는 개발·생산하는 업스트림(Up-Stream) 단계 가스를 액화해 수송·기화하는 미드스트림(Mid-Stream) 단계,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단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기존에 포스코가 운영하던 LNG터미널 등은 미드스트림 단계에 해당된다. /양성운 기자 ysw@

## "트라하 다운받고 데이터 5GB 받으세요"

KT-넥슨, 출시기념 선물 이벤트

KT는 넥슨과 손잡고 '트라하' 출시 기념 '초능력 선물 이벤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KT는 넥슨코리아와 모아이게임즈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게임 '트라하(TRAHA)'를 내려 받은 KT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5기가바이트(GB)와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트라하는 넥슨의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설치용량만 5GB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트라하를 다운로드 받은 후 넥슨이 운영하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KT 고객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벤트 당첨 고객 30만명에게는 5GB의 데이터가 내달 1일 제공된다. 제공된 데이터는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현대중, 조선 기자재 자회사 정리... 협력업체와 함께 크다

현대중공업이 '현대hips'와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잇달아 매각하며, 조선 기자재 자회사를 모두 정리했다.

현대중공업은 15일 현대hips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허큘리스홀딩스에,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지난달 금융컨소시엄인 팍스톤매니지먼트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대hips는 1300억원,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8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번 매각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협력업체들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물량까지 가져갈 것이라는 지역 협력업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며 발표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조선사와 협력시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

로 우리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던 조선 기자재를 100% 국산화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기술력 확보→기자재 100% 국산화→더 많은 일감확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